(200자 원고지 70매)

**왼손잡이 소설가**

 Z의 아버지는 꿈속에서보다 더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혀 온 몸을 떨었다.

 태양이 아이의 머릿결을 반짝이게하며, 자신의 후손을 지구 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수 위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뒷모습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아이는 아버지를 돌아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그것이 오직 아쉬웠다. 호수를 둘러싼 잔디밭, 노란 민들레 셔츠에 빨간 팬지 바지를 입고 하얀 히아신스 맨살을 드러낸 곰 세 마리, 즉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들인지 딸인지 정해지지 않은 후손, 수백송이 튤립하트, 신경세포를 쉬게 해주는 한산한 군중 분포가 만드는 도시공원의 평화로움을 충분히 즐기고 있었지만.

  호수만 바라보고 있던 아이는 드디어 맑은 눈망울을 드러내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수 바닥에 점점 가라앉으면서.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지켜만 보았다. 때묻은 자신을 순수함으로 반복한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열정이 지배하여 공원의 모든 사람들처럼 멀리 있었다.

  진실함만이 드러나는 아이의 얼굴이 낯설었지만 아버지는 흐뭇했다. 아이는 평온했고 숨 쉬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인 것 같았다. 도시의 호수는 해가 건너편 주택단지에 낮게 걸칠 때까지 바티칼 호수가 되어 아이를 끝없이 가라앉히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팔다리를 휘저어 더욱 깊은 곳으로 헤엄쳐갔다.

  태양이 곤한 몸을 지구 뒤편에 누이고 붉은 하품을 한동안 늘어뜨릴 때 밖에 머물던 사람들은 집이 몹시 그리워지기 마련이었다.

  -아버지, 우리도 집으로 사라져요. 공원의 모든 사람들처럼요.

  잔디밭에 펼쳐진 파란 매트에 앉은 아이는 휴일 오후의 기분 좋은 피로를 기지개를 펴 온 몸으로 전달하며 말하고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구의 후손일까. 아버지는 낯선 모습에 혼란을 느꼈지만, 이내 호수속으로 사라져간 아이와 동일인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5분 동안 걸어 집 근처에 이르자 아버지는 비로소 아들의 얼굴을 또렷이 각인해 세상 어디에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웃집 부부가 창 밖을 보며 ‘우리 도시에서 가장 다정한 부자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군’ 속삭이는 소리를 듣자, 아버지로서 완전한 만족을 느끼게 되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모든 이웃들이 들을 정도로 탄식과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평생 지속될만한 것이었다.

  -쌍둥이를 데리고 나간 아버지가 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미소 지으며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인가!

  집 밖으로 영원히 추방할 듯이 아내는 아이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꿈이었으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로.’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때, 아내가 세차게 흔드는 바람에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났다.

  의사 선생님에 의하면 건강한 한 명의 사내아이를 품고 있는 Z의 어미니는 태양이 아버지의 정신을 어루만져 꿈에서 충분히 깨어나도록 커튼을 끝까지 열어젖혔다.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던 해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상서로운 기운이 천년동안 이어져온 사찰에 백일 동안 매일 찾아가 기원한 후 아이를 갖게 되었다.

  아버지는 꿈에서는 희미하게 느꼈던 불안이 갑자기 수천 배로 증폭되자 다시 잠을 자고 싶었다. 아버지는 아이의 불행한 미래를 알리는 때늦은 태몽을 꾸는 인간이 아니라 어떤 꿈이라도 한결같이 꿀 수 있는 개가 되고 싶었다.

  Z는 아무런 신체적 결함 없이 부모에게 와주었고 Z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범한 자식을 갖게 된 것이 그간의 인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기쁨이라며 모든 신과 존재들에게 감사했다.

  Z는 집안의 첫째이자 마지막 후손으로서 보통 아이들 두 배 이상의 보살핌과 기대를 받으며 자라서 7살 생일 축하를 받는 날에는 14살은 되는 듯이 성숙한 영혼의 눈망울을 반짝이며 앉아 있었다. 몇 해 전부터 흰머리가 우세해지게 된 Z의 아버지는 아이가 오늘부터는 매일 열 끼의 식사 후 열 번의 산책을 하고 잠들기전 열 가지의 인생에 대한 교훈을 깨닫기를 마음 속으로 빌어 보았다.

  Z가 비단 리본으로 묶여진 포장을 뜯어 폭이 50센티미터 쯤 되는 흰색 상자를 열어 보니 청진기, 크기와 모양이 다른 수술용 가위와 핀셋이 각각 5개, 설명서가 필요해 보이는 굽혀진 파이프 모양의 것들이 2개가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고, 위쪽 상자 안쪽에 달린 지퍼를 열자 흰 가운이 Z의 이름을 가슴에 새긴채 들어 있었다. 모두 2분의 1정도로 축소된 은색 플라스틱 모형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쓰러져 준다면 한 번 성능을 시험해 보고 싶을 정도로 정교하였다.

  Z는 선물을 확인하자, 벌써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기쁜 미소를 지어야 할지, 진실을 위해 실망의 한숨을 저절로 새어나게 해야 할지 망설여져, 누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만을 바랐다.

  -아들아. 너는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는 항상 궁금했지만  오늘까지 기다려 왔단다. 이제 너도 대답할 무엇이 떠오르지 않겠니?

  Z의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대답에 대한 기대보다는 예정된 일정을 확인해가는 가벼운 긴장을 느끼듯이 말했다.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웃들도, 우리의 호수공원도, 세상 모두가 들어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거에요.

  이렇게 말하기만 했어도 아들의 생일임을 감안해서 아버지는 쓴 웃음이라도 지어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Z는 가운에 꽂혀 있던 펜을 들어 의사의 도구상자를 둘러쌌던 포장지를 방 안 가득 펼쳐 왼손으로 ‘소설’ 이라고 쓰는 것이었다.

  -아들아! 제발 처방전을 쓰겠다고 말하렴. 아버지가 언제나 가르쳤듯이 왼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다. 바른 자세로 말이야!

  Z의 아버지는 아이의 손에서 펜을 빼앗으려 했지만 아이의 왼손은 타고날 때부터 펜과 하나로 맞춰진 것처럼 결코 펴지지 않았다.

  태어난 순간부터 Z는 항상 왼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만지려 했고 왼손가락만을 빨아 배고픔을 알렸고, 왼 주먹을 쥐며 분노를 표시했다. Z의 아버지는 불행함에 울뻔 했지만, 아버지의 의무를 되새기며 끝내 모든 것을 이겨냈다.

  아이가 왼손을 뻗을 때마다 부모는 한발짝씩 뒤로 물러섰고, 왼손가락을 빨면 먹을만한 것은 모조리 눈에 띄지 않도록 감추었고, 왼 주먹을 쥐면 손 바닥에 기름을 발라 두고는 홀로 아이를 남기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아이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만큼 영리해 아버지의 인내와 반복된 노력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자, 오른손잡이가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잡이인 아이들과 꼭 닮아 있는.

  -내년 생일에 다시 물어보마. 그때까지 시간은 충분하니 아버지도 너도 노력을 해야만 한단다. 그렇지?

  사라지는 꿈은 오늘일것이라 다짐한 Z의 아버지는 책임이라는 관념과 지난 노력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푸른 물결이 검게 그을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호수 주위를 돌았다. 서재로 돌아와서는 그동안 보아 왔던 양육과 훈련에 관한 책들을 하나씩 집어들어 보았다. ‘몇 배의 책과 계획과 인내가 필요한가? 혹은..’

  아버지는 의사가 되었다면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법률가가 되었더라도 인생의 성공은 분명한 셈이라고 늘 말하셨다. 그리고 Z가 반짝거리는 황금배지를 달고서 부모님 댁을 방문한 후부터는, 회계사도 성공을 보증하는 종류에 완전히 속한다고 덧붙이셨다.

  십년 전까지는 오직 의사와 법률가만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배지를 가질 수 있었다.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도 은색배지, 구리나 합금으로 황금을 모사한 배지만을 가질 수 있었다. 황금을 모사한 배지들은 절실한 사정이 있는 도둑 외에는 착각하지 않을 만큼 조잡해 보이는 법이어서 실제로는 황금배지 외에는 은색배지만이 사용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멀리서도 단번에 황금배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회계사는 이제 의사, 법률가와 함께 국가와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종족으로 분류된 것이었다. 물론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대통령들은 모두 3개의 황금배지 중 몇 개는 꼭 가지고 있었다.

  회계사의 배지는 계산기의 모양이었고 액정에 를 또렷이 표시되어 있었다. 의사의 배지는 지름만큼 두터운 지갑에 청진기를 갖다댄 모양이었고, 법률가들의 배지에는 공통적으로 저울이 있었는데, 역할에 따라 조금씩 모양이 달랐다. 판사의 것은 서로 3배의 차이가 날듯한 몸집을 가진 사람 둘이 저울 양쪽에 걸터 앉아 있지만 조금도 기울지 않은 모양이었고, 검사의 것은 험상궂은 흉터가 얼굴에 있고 몸집이 거대한 사람이 반대편 쪽에 놓인 검찰청건물을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이었고, 변호사의 배지는 한 쪽은 비어 있고 반대 쪽에는 황금덩어리가 가득 올려져 있는 모양이었다. 검사와 변호사의 저울은 판사의 것과 다르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아버지는 Z가 집에 들를 때마다 큰 소리로 ‘금 배 지 회 계 사 께 서 집 으 로 왔 구 나 아’ 큰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처럼 생각되었고, 언제나 황금배지를 가슴에 달고 오게 되었다.

  아버지의 웃음이 대문 밖으로 퍼져 나갈 때마다 Z는 아무 하는 일 없이 편안히 놓여 있는 왼손이 무언가에 자꾸 찔리는 것 같아 함께 웃을 수 없었다.

  황금보다 값진 토요일 아침이었다. Z에게는 모든 토요일과 일요일이 황금만으로는 누구에게도 바꿔주지 않을 것이었다. 옷장 정중앙 칸에 놓인 자신이 가장 아끼는 바지, 셔츠, 코트, 장갑과 목도리를 경건하게 하나씩 걸치자 Z는 예루살렘으로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심정이 되었다.

  Z는 도시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얼어 붙은 詩를 따뜻이 품어 봄에게 전해주기까지’라는 강좌에 10번의 토요일 오전을 맡기고 있는 중이었다. 다행히 Z를 제외하고도 동상 걸리기 직전이었던 수백 편의 詩들은 청강생들의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열정 덕분에 여름에게 전해주어도 될 정도였다.

  Z는 이번 주에도, 펜 바로 옆에 왼손을 둔 채로, 미카엘 폰 루시퍼의 ‘천사 혹은 악마의 詩’가 30분여 동안 낭송되는 것을 들으며, 사람들이 천국에 든 듯한 표정으로 단꿈에 빠져 있을 때, 길을 잃고 홀로 지옥에 떨구어진 여행자의 결연한 정신을 유지한 채, 오른손이 혹시나 천국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을까 기다렸다. 오른손의 손가락들이 반쯤 오그라들고 맥없이 늘어진것처럼 보여, 왼손 엄지와 검지를 펜에 대려는 순간, 소총을 잃어서는 절대 안됨을 아는 신병처럼 오른손은 빈틈없는 자세로 먼저 펜을 집고 모든 접근을 완벽히 봉쇄했다.

  Z는 한 번도 왼손으로 펜을 쥐어 본 적이 없었다. 회계사로서나 모든 일상에서 오른손잡이의 생활은 자연스럽고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Z는 소설을 쓰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치밀어오르곤 했는데, 그 때마다 오른손은 비웃었고 왼손은 신의 초대를 받은 시골의 평신도처럼 굴며 펜을 찾아 이리저리 뛰었지만, 비웃음을 띤 오른손은 언제나 왼손을 펜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했다.

  왼손은 실현된 적 없는 희망이었지만 잃지는 않았고, 봄이 나른한 걸음으로 남태평양의 어느 야자수 그늘 아래를 걸어오고 있을 때, 보내기 아쉬워하는 그들에게 詩들을 보내야할 순간이 왔다.

  Z가 10년째 일하고 있는 A회계사무소에는 31명의 회계사가 있었는데, Z는 서열 16위의 회계사였다. ‘A회계법인 근본 규정’ 에는 회계사의 지분율이 다음의 공식으로 정해져 있었다.

공식에 의하면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지분의 차이가 더욱 커지지만 4명 이상의 회계사가 있는한 한 사람도 과반수의 지분을 차지할 수 없었다.

  31명의 회계사가 있는 지금은, 1위:25%, 2위:12%, 3위:8.3%, 4위:6.2%, 5위:5%, 6위:4%, ... , 15위:1.66%, 16위(Z):1.55%, 17위:1.46%, ... , 31위:0.8% 대략 이런 수치가 나왔다.

  지분율은 중요한 결정들에 대한 결정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연봉과 사무실과 의자의 크기까지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정해졌다. 의자의 크기는 엉덩이의 크기가 그렇게 다를 수는 없어서 너무 크거나 작아지지 않도록 제한을 하기는 했다.

  이 단순한 공식과 유인책에 의해서 회계사들은 더 높이 오르려는 열망을 잃지 않게 되었고, 너무나 눈에 띄는 차이를 절감하고 유사한 동족을 찾아 상하의 두 부류로 스스로 갈라지게 되었다. 사업이 번창해 회계사 수가 늘어날수록 상위 소수의 일방적인 전횡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게 되었다.

  A회계사무소의 회계사들은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는 기계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 상위 소수의 회계사들에 대한 존경은 사제들처럼 충만했다. 규모가 커질수록 회계사무소가 모두의 것이라는 믿음도 더욱 강해져 더 많은 장부를 더 빨리 검토하기를 소망했다.

  세상의 거의 모든 회계사무소가 이 공식과 정책을 따르고 있었다. 회계사무소들이 다루는 수익과 자본의 총합은 끝없이 늘어나며 세상의 행복이 한없이 늘어나 창고에 쌓여가고 있음을, 비용과 부채의 총합은 끝없이 늘어나며 우리는 행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희생을 더욱 대담하게 치르고 있고 죄들이, 땅과 바다의 깊은 어둠 속에, 죽은 자들보다 더 빨리 늘어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Z는 회계사들의 황금배지를 보며 이런 생각들을 떨칠 수 없는 자신이 5년동안이나 흔들림없이 서열 16위에 머무르는 점이 다행스럽고 만족스러웠다.

  31명의 회계사들은 ‘The High’와 ‘The Future’ 두 그룹에 속하였는데 서열 1위부터 15위의 고귀한 분들과 17위부터 31위의 미래의 고귀한 분들로 구성되고 있었다. 각 그룹의 사람들은 비슷한 연봉과 의자와 정장을 통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끊이지 않는 경조사와 기념파티로 평일이건 휴일이건 유대와 즐거움을 꾸준히 나눌 수 있었다.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가끔씩 존경과 감탄, 자애와 자선의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써 A회계사무소의 전체적인 조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Z의 생각에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은 그랬다.

  서열 16위는 고귀한 자들의 그룹과 미래의 고귀한 자들의 그룹이 모두 15명으로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임을 하며 흔히 말하는 깍두기가 되어야할 운명인 듯 했지만 사무소의 창립부터의 전통에 따라 균형점이 되었다. 사무소는 언제나 홀수의 회계사를 두어왔고 정 중앙 서열인 사람은 그렇게 균형점이 되어, 별 역할을 하지 않고 가만 있음으로써, 양 측의 긴장을 완화하고 거리를 살짝 두도록 해주었다. Z는 평일 저녁과 휴일의 대부분을 산과 들, 박물관과 미술관을 다니거나 호기심을 부르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회계사는 아닌 사람들 특히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들을 만나며 보내었다. 16위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얼마간 정체되었던 회계사무소의 번영이 새롭게 시작되어 회계사가 33명이나 35명 혹은 그 이상이 된다면, Z는 균형점을 지키기 위해 적당히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열 15위의 회계사 A는, 안락하고 상쾌하고 멋지고 훌륭하기 그지 없는, 사무실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넓게 자리한 ‘휴 라운지’를 놔두고, 커피 한잔을 뽑아 들고, 세심하게 분재된 나무들, 소 한마리도 편히 앉을 만한 천연소가죽쇼파, 은은한 향을 풍기는 원목 벽과 그 사이의 통유리 창문 곁을, 사무실 밖에 천국이라도 발견해놓은 사람처럼 거침없이 지나쳐 밖으로 나가는, Z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언짢아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16위를 벗어나려고 고귀한 자들 곁에 기웃거리거나 저 어린 친구들과 어울려 마음을 달래면서 미래를 준비라도 해야 옳을 텐데, Z는 마치 신비주의자들처럼 무책임하게 지내고 있었다. 자신은 그토록 열정을 다해 고귀한 분이란 칭호까지 얻었고 더 고귀해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A는 혹시나 Z가 무책임한 태도로 모두의 경계를 허물고, 단번에 직근 상위자인 자신과 그 이상을 단번에 넘어설 음모를 꾸미고 있는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다. 어느 경우에나 A에게는 Z가 거슬리는 가시였다.

  Z는 A가 자신의 광합성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수목한계선이란 생각을 했다. Z는 A에게 자신이 지닌 여분의 산소를 모두 내어주어서라도 A가 평화를 얻기를 바랐지만, 한 팀이 되어 감사를 진행할 때에는 다른 때보다 A는 그것을 잃어버린 듯 보였다.

  -회계사는 숫자를 통해 사실만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야. Z. 너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건가? 네가 쓰는 보고서에 어울릴만한 제목은 ‘하루밤에 사라진 고정자산의 진실’쯤이나 되겠군. 아주 실감나고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설을 만들어 보던지. 그러나 상위자인 내 동의는 얻지 못할거야. 그럼 A회계사무소에선 누구의 승인도 받지 못하게 되겠지. 회계사인가? 소설가인가? 선택을 해.

  Z는 문 밖으로 사라져 잠시 걷고 싶었다.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얕은 언덕을 올라가 나무들 옆에 자리한 벤치들 중 하나에 앉아 햇빛을 자신의 최대 면적으로 흡수하며 작은 숲과 너머의 도시도 바라보고 싶었다.

  1초의 침묵으로 A에게 임시의 답변을 내놓고, Z는 천천히 회의실을 빠져 나가 많은 회계사들이 미소를 띠며 평화를 향유하고 있는 휴 라운지를 지나, 밖으로 사라지려하고 있었다. 한 팔마저 사라지려할 때, A는 넘치는 아드레날린을 동원해 Z를 문 안쪽으로 끄집어 내었고, Z의 양 팔을 자신의 손으로 꽁꽁 묶어 두었다.

  -소설을 쓰란 말이다. 당장 들어가 소설을 이어가란 말이야.

  -네 말이 옳다.

  Z는 몸의 중심에서부터 왼손 끝까지 미묘한 꿈틀거림이 이어지더니 맹렬한 폭포로 변함을 느끼며, A의 오른손을 뿌리치고 A의 턱에 짧은 이야기를 기록해주었다. A의 턱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각목으로 세로로 찔린 것처럼 군데 군데 작은 함몰이 생겼고, 함몰한 곳에 물들여진 울긋불긋한 피멍이 화산폭발의 흔적을 떠오르게 했다. A는 고귀한 회계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했다. 회계사들은 믿을 수 없는 꿈을 꾸는 표정으로 침묵과 함께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1년만에 직접 보게 된 대표회계사는 서열 1위의 침착과 품위를 유지하며 Z에게 결정에 대한 설명을 했다.

  -왼손을 사용했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른손을 써서 열 번 이하로만 주먹을 휘둘렀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겁니다. 10번의 주먹 정도에는 사람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Z씨도 잘 이해하실겁니다. A씨의 맞은 상처는 1달이면 아물테지만 마음에 지속되는 모욕의 감정은 평생 남아서 괴롭힐겁니다. 왼손으로 폭력을 쓰는 것은 상대를 극단적으로 모욕하고자 할 때 최후로 쓰이는 방식인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몇 년 전 ‘오른손만이 공식적인 행위와 절차에 유효한 방식이고, 왼손은 공식적으로 무효하다’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명문화되기까지 했으니까요.

  Z도 잘 알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의사록 제 7211호에서 이번 관습헌법의 존재에 대한 결정은 본 결정이 기록되는 의사기록 문건에 의해서 명문규범화되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구속함을 보장한다고 하며 오른손잡이의 관습은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종이 위에 정착하게 되었다.

  -해고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의는 전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해고의 방식은 정당하고 적절한지도 모르겠다고 Z는 생각했다. A의 불안과 눈물을 떨구게 한 치욕이나 과도한 물리적 충격은 A만이 감수해야할 것은 아닐 것이다. A는 Z의 해고를 통해 약간은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Z는 홀가분했다. 떠나야할 때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도 했다. 망설임과 혼란에빠져 있던 Z의 등을 누군가 떠밀어준 셈이었다.

  지난 겨울 시의 애인들에 둘러싸여 소설을 1줄이나마 얻어볼까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수강생들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것은 문학순수령(文學純粹令)의 제정 소식이었다. ‘oo년 1월 1일부터 문학은 오직 시만 허용된다. 고로 이외의 어떤 형태의 문학적인 글도 생산과 표현이 되어서는 안되며, 불시의 점검이 가장 험한 산골 오두막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위반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요지는 그랬다.

  법안에 참여한 의원들과 관련 주요 기관의 인물들을 대신한 탁자를 두들기며 모두가 한결같이 비난했지만, 손바닥과 탁자마저 몹시 따뜻해졌을 무렵에는 문학의 대표로 시가 뽑힌데 대해 약간의 칭찬들을 보태기도 했다.

  Z는 떠올렸다. 종이가 점점 귀해지고 있는 현상을. 회계사들도 요즈음은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아직 세상에는 나무를 비롯한 식물들이 번성하고 있으며 연구실과 공장은 굴러다니는 돌과 다른 무엇인가를 혼합해서 종이를 대신할만한 신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종이를 아끼라는 외침들만 곳곳에서 들려왔다. 그런데도 문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이에 쓰고, 그 위에 한번 더 쓰는가 싶더니 또 다른 종이를 필요로 했다. 그들의 비율은 은하계에 소속된 별들 중 태양계의 모임 정도였지만 종이 소비량은 은하계를 살짝 흔들리게 할 정도는 되었나 보았다. 가장 짧은 생을 마감하기 마련인 시인들은 종이의 위로를 계속 받으며 영원불멸한 자손을 두게 될지도 모르겠다.

  10년이 된 회계사가 모은 재산은 상당했다. 떠나는데 필요한 작은 금액을 제외하고 부모에게 드리며 먼 외국에서 몇 년 지낼것이며,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고 유일한 자손이 말했을 때, 아버지는 슬픔과 만족스러운 기분을 모두 숨길 수 없었다. 아들을 성공적으로 양육한 아버지의 자랑과 보람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추운 겨울이 얼굴에 자리잡은 어머니는 아버지가 위로해줄 것이다. Z는 어쩔 수 없었다.

  한줄기 빛이 동굴안으로 들어와 다리가 한결 따뜻해지자 눈을 떴다. 이곳의 높이만큼 떨어진 곳에 소행성5539안네프랑크가 추락해 얼어붙은 듯한 거대한 산의 모습이 보였다. 동굴 안의 아늑함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다. 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순간은 지구에 태어난 날 예감할 수 없는 태양을 선사받은 영혼들의 경이를 기억나게 했다. 가벼운 열기로 주변이 충만하게 되자 Z는 양젖을 한 모금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

  입구에서 다섯 걸음을 지나 절벽 아래로 펼쳐진 강물을 보았다. 조용한 물줄기가 자유롭게 휘어지는 곡선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고 검은 바위덩어리를 어깨에 두른 빙하들이 멈춰 선 어느 시계에 맞춘 것처럼 느리게 물줄기를 따라가고 있었다.

  양과 염소는 몇 일 전에도 보았지만, 백일 동안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천미터를 내려가면 Z처럼 동굴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수십명 있었고, 천미터를 더 내려가면 작은 평원이 나타나고 마을도 몇 군데 있었다.

   Z가 동굴에서 지낸지 천일일째 날이 되었다. Z는 절벽을 돌아 구부러진 오솔길을 걸었다. 히말라야에도 봄은 빼놓지 않고 찾아와, 검은 돌과 눈만이 머물던 세계에 납작 엎드린 꽃과 나무들로 쾌활한 옷을 입혀 주고 있었다.

  거대한 산의 어깨에 태양이 끝을 살짝 걸치고 하품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 Z는 동굴 앞에 눈을 감은 채 서 있었다.

  어둠이 히말라야의 하얀 몸통전체를 완전히 가리자 Z는 마을의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기름이 든 등잔에 불을 붙였다. Z는 매일 세헤라자데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그녀가 원하는 곳까지 듣다가 잠들었다. 천일일이 지나는 중에 언젠가 왼손이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이 천일하고 하루가 되는 날이었지만, 왼손은 펜을 붙잡을 수 없었고 오른손은 갈수록 자주 그러듯이 멍해져 구름 아래를 가리킬 뿐이었다. Z는 낙담하지는 않았다. 매일 조금씩 투명한 기운이 몸 안으로 차올랐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해 동틀 무렵과 해질 무렵 명상을 하는 시간 외엔 이어질법한 이야기들을 수십가지는 떠올려보며 즐거워하곤 했다.

  천일일밤의 이야기가 끝나자 Z는 동굴 입구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지구 밖에서 왔을것만 같은 거인들도 암흑 속에 멸종되어 있었다. 스스로 빛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수천의 별들이 히말라야도 먼지와 같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Z의 머리와 심장, 두 다리와 양손 끝까지 밝고 따뜻한 기운이 이어지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 때 지혜와 용기로 가득한 여인의 목소리가 동굴 안으로부터 들렸다.

  -다음날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돌아보니 목소리만큼이나 단아하면서 쾌활함을 지닌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왕께서 천일밤과 또 하루밤동안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답니다. 몇 일 만에 짧고도 강렬한 기쁨을 누리고 떠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3번째 밤까지의 이야기도 채 듣지 못하고 다른 자들은 떠났답니다. 그 중 몇은 만일의 밤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찾아오기도 했지요.

  당신은 세상 밖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세상들도 진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군요. 어서 내게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서 잠을 이루기도 쉽지 않을겁니다.

  여인은 세상 밖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동굴 안쪽 벽으로 들어갔고, 사라졌다. 이내 벽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빛을 내어 Z를 비추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Z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Z의 왼손은 손목 위로 살과 뼈 전체가 잘린 채 단단해져 뭉뚝한 모양이 되어 있었다. 모든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자신의 어느 생일날 벅찬 기분을 이기지 못해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아버지는 비통함과 당혹을 순간 견디었고 다음 해 생일에 같은 질문을 했다. Z는 왼손을 힘차게 들어 보이며 ‘소설가’라고 세상의 모든 이웃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쳤다.

  아버지는 2번 더 ‘정말로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냐?’ 물었고 Z는 두려움을 잊은 채 가장 먼 별들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변하지 않는 답을 말했다.

  아버지는 벽장안 가장 깊은 곳에서 도끼를 꺼내 Z의 왼쪽 손목을 잘라내었다. 한동안 정신을 잃은 상태로 지내던 Z는 3일만에 깨어났고, 왼손의 아픔을 잊었다. 그 후 아무도 Z의 왼손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Z는 거울에 비치는 오른손이 왼손으로 보이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이해하고 거울 로 천천히 걸어갔다.

  스와미 쿠마르는 히말라야의 수도자였다. 2번의 폐관수행을 마치고 백일동안의 바깥나들이를 하던 중이었다. 머물던 동굴 위로 천미터를 올라가면, 기거하기 쉽지 않아 수도자들이 잘 머물지 않지만 수백년 동안에는 간혹 수도자들이 몇 머물기도 했던 동굴이 하나 있었다. 3번째 천일의 수행은 그곳에서 하기로 마음먹고 따뜻한 봄 볕을 즐기며 동이 트자마자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해가 하늘 정중앙에 떠올랐을 때 동굴 입구에 도착한 그는 마침 동굴을 나오는 수도자 한 사람과 마주쳤다. 수도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고 구름 아래를 가리키며 산을 내려갔다. 왼손 손목이 잘려 있었지만 오른손으로 바위를 짚으며 염소들처럼 쉽게 내려갔다.

  동굴에 들어서자 바깥만큼이나 안은 밝아서 끝까지 들어갔을 때는 벽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놀랍게도 좀 전에 산을 내려간 수도자가 거울 속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는 높은 경지에 도달한 성자처럼 평화로워 보였고 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그것을 적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떠난 자와 반대로 오른손목이 잘려 있고 왼손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

                                                                           끝